

기고

김대중

광주시 인권평화과정



저는 가끔씩 한 도시가 세계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곤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래도록 율림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내 생각의 종착점은 광주가 그 해답을 안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다. 광주는 1980년 5월, 무력에 맞서 평화를 외쳤고, 고립 속에서도 연대를 선택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광주가 올해 또 한 번, 세계를 향해 질문은 던지고 있다. “당신의 도시는 지금, 평화와 인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2025년, 광주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함께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에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이 주제는 다는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폭력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차별과 혐오, 기후 위기와 강제이주까지 물리적 형태를 넘어 일상의 구조 속

‘인권도시 광주’, 왜 다시 주목하는가

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가까운 단위인 도시가 그 중심에 서서 실천해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그 가능성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도시이다. 5·18의 기억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게 하는 살아 있는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럼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도시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전쟁과 억압, 혐오와 빈곤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연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자리에 지금이 가장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광주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금, 기억과 인권,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 스스로 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푸른 광주전과 예술의 거리까지 ‘살아 있는 인권 교육장’이라 할 것이다. 광주를 걷는 일은 과거의 투쟁을 기억하고, 오늘의 평화를 체감하며, 내일의 연대를 상상하는 과정이다.

저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포럼이 전 세계 도시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인권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고, 평화는 침묵이 아니라 저항이며,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광주는 그 메시지를

증명해 온 도시이기 때문이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평화와 연대: 폭력과 전쟁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평화의 부재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인권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제기구와 인권도시 관계자, 시민사회, 인권전문가들이 함께 국제적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포럼은 광주가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서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5월 15일 개회식에서는 인권운동가 서승 교수님의 기조강연, 최재천 교수님의 전체회의의 기조발제와 배우 차인표와의 북토크콘서트, 인권영화 ‘혼자’의 이경호 감독과의 대화, 자연식물식 원데이클래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여성, 이주, 장애, 마을 등 다양한 주제 및 특별회의에 참여하여 누구나 인권과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의 광주가 다시 세계에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고 있는가?”, 또한 전 세계인들과 인권도시들이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 광주를 향한 준비에 나서길 소망한다.

기고

안규남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 생산의 안정성과 품질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벼농사와 같이 기온 변화에 민감한 노지 작물의 경우, 재배 환경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벼는 파종 시기부터 수확기까지 생육 전 과정이 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내기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쌀의 수량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의 기후 양상과 벼의 생리적 특성을 반영해, 모내기 시기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벼 재배 면적을 가진 대표적인 쌀 주산지로, 매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현장 지도를 지속해 왔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온 피해와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5월부터 본격화될 모내기를 앞두고 도내

농가에 ‘모내기를 6월 이후로 늦출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기존의 모내기 기준은 2005년 설정되었으며, 중만생종은 5월 23일부터 6월 13일, 조생종은 6월 13일부터 19일 사이가 적정 시기로 안내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기온 상승과 기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만생종 벼의 경우 도내 시군별로 따르면 6월 5일에서 15일, 늦어도 6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이앙하는 것이 등숙기에 고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벼의 등숙기가 대체로 9월에 이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른 모내기는 등숙 시기를 고온기와 겹치게 하여 품질 저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빠른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도내 시·군별 모내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이 5월 중에 모내기를 완료하고 있으며, 특히 조생종 벼의 경우 80% 이상이나 되어 지나치게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9월 평년기온은

1991~2020년 기준 22.2도로, 20년 전(1971~2000년)의 평년 평균인 21.4도보다 0.8도 높아졌다.

특히 2024년 9월에는 26.3도까지 기록되어 평년보다 4.1도나 높은 이례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벼가 익는 시기에 이처럼 고온 상태가 지속되면, 양분 전환과 쌀알 형성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품질이 떨어지고, 도정 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중만생종 벼는 6월 9일 전후, 조생종 벼는 조기 수확할 목적이 아닌 경우 이모작 일정에 맞춰 6월 중순 이후에 모내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월 중에 이앙을 완료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고 최소한 6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

이처럼 모내기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고온기 피해를 줄이고 고품질 쌀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 작은 실천이 전남 쌀의 품질을 지키는 길이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와 기술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독자투고

산불 발생…행동요령 숙지해야

최근 경상북도 의성군의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 발견 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야 한다.

대피 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에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다.

또 산불이 주력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야 한다.

또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가 요구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예방이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산불 예방에 힘쓰도록 하자.
한선근 고흥소방서 광역 119안전센터 소방위

OPINION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사설

광주 지자체 대선 투표를 제고 결실 맺기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가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이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기로 공동결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21대 대선 목표 투표율을 역대 최고인 92.5%로 정하고 6대 실천분야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까지 하기로 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시민 잠정권 보장을 위해 요양시설과 병원 등 447개소에 거소투표소 설치 안내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지역 18개 대학 총장 및 총학생회와 함께 ‘친구랑 투표랑 1+1’ 캠페인을 펼치고, 사전투표(5월 29~30일) 기간에 청년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한다.

경제3단체, 노동단체, 주요 기업체 및 산업단지와 협력해 유연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제과·음식·커피 등 할인 이벤트, 오월광주 나눔세일(49개 업체)과 연계한 ‘6·3 투표빵’ 나눔세일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권이 있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잠깐 멈춤, 생애 첫 투표’ 응원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역 357개 투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 지자체들이 투표독려에 적극 나선 것은 이번 대선이 돌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고 침체일로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선거여서 모든 시민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광주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에서 17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13대(노태우) 때 92.4%, 14대(김영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윤석열) 81.5% 등이다.

12·3 비상계엄이후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유권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임을 명심할 때다.

광주AI영재고, 선도도시 도약 계기돼야

광주 인공지능(AI) 영재학교가 오는 2027년까지 설립된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AI 영재학교 설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 AI 영재학교는 국비 466억원 등 총 사업비 665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가 2027년 개교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복구 오통동에 부지면적 2만 3138㎡, 지하 1~지상 5층 규모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추게 된다.

전국에서 150명의 우수 학생을 선발, 학점제·무학년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기업·연구소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중심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설립이 진행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라기술훈아 특화 영재학교로 육성되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AI 사관학교에 이어 AI 영재고까지 건립되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AI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사관학교는 최신 AI 기술 교육, 기업 연계 프로젝트, 멘토링, 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실무 역량 강화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1221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배출된 인재들은 AI 기반 스타트업 창업, 국내외 AI 기업 취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AI 영재고 주변으로 국가 AI 데이터센터, 실증·창업시설 등 AI 집적단지를 비롯해 AI 지식산업센터, GIST 등이 모여 있어 이들과 연계해 인재·인프라·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AI 생태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AI영재고 설립이 광주가 AI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는 물론 AI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취재수첩

기부, 금액보다 선한 마음이 중요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돈을 많이 버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거겠지’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월드비전 등 구호단체에 기부, 물품 후원에 나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흔히들 기부·후원가들은 경제적인 여유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떠올린다. 장기화된 내수침체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 기부는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거나 내 삶과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구호 단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온정 나눔에 나서고 있는 기부·후원가들의 이면을 보면 전혀 다르다.

고액 소득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작은 정성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다. 그렇다고 이들의 보유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다. 돈은 많고 밥 먹고 살 만큼이면 됐고, 나누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여긴다. 아끼면 남고, 나누면 채워진다는

고 생각한다.

이에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없거나 혹은 외식을 못하게 되더라도, 온정 나눔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기부가 멀리 있지 않고, 삶과 가까운 일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이다.

최근 기부부에 동참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선한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다. ‘빅워크’(걷는 거리만큼 기부), ‘파이어머커스’(폐소방호스 임시이클링·구매 상품 금액의 일부 기부), 네이버 해피빈 공 등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 없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을 모아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이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온정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길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